



완주마을이야기 Since 2012 제155호

2025년 7월호

후루룩 한 그릇, 봉동 국수로드

봉동에는 국숫집이 여럿 있다. 봉동파출소에서 농협 방향으로 이어지는 길가 양쪽, 골목마다 옹기종기 자리한 국숫집들은 저마다의 방식으로 손님들을 맞는다. 3대째 한자리를 지키며 사랑을 받아온 노포부터 개업 1년 차 새내기 가게까지. 국수를 향한 각자의 철학과 맛으로 뜨거운 여름을 마주하는 봉동의 국숫집들을 찾았다. 관련 기사 2~7면

사진설명: 담백하고 진한 국물에 쫄깃한 면발, 풋고추에 묵은지 소박한 반찬이 곁들여진 아줌마국수의 물국수 한 상.

- 동상계곡 물소리축제 현장 ... 8P
- 용접 배우는 김정운, 장수진씨 ... 10P
- 삶의 풍경 화산면 유미 씨 이야기 ... 14P
- 완주의 예술인 회화작가 하태훈 ... 16P





더위엔 뭐니 뭐니 해도 국수 한 그릇! 봉동 골목골목에 숨은 국수와 디지털 맛집 11곳을 찾았다. 근본 중의 근본, 물국수부터 매콤한 비빔국수, 고소한 콩국수까지. 노포의 내공과 새내기 가게의 감각이 어우러진 봉동 국수로드. 입맛 따라 후루룩- 함께 걸어보자.

01 봉동 새마을국수

봉동농협

봉동농협
하나로마트 본점

완주고등학교

봉동파출소

02 하찌식당

03 아줌마국수

04 달달구리

05 하나분식

06 우리국수

07 할머니국수

봉동생강골시장

봉동우체국

10 시골 보리밥·국수

08 봉동커피

09 시장통 할머니국수

매
내
퍼

01 봉동 새마을국수

#얼두_뽕 #콩배기_안시커도_양양음

- 주소 봉동읍 봉동동서로 129
- 영업 10:00~19:00 (매주 일요일 휴무)
*18:30 마지막 주문
- 문의 063-262-3292
- 여름 대표메뉴

물국수

비빔
국수



02 하찌식당

#시원한_소바

- 주소 봉동읍 봉동동서로 128
- 영업 11:30~20:00 (매주 월요일 휴무)
*14:30~15:00 휴식시간
- 문의 0507-1417-1541
- 여름 대표메뉴

소바



03 아줌마국수

#딸이랑_퍼느리랑 #손수제비_맛집

- 주소 봉동읍 봉동동서로 134
- 영업 11:00~17:00
- 문의 063-261-2534
- 여름 대표메뉴

물국수

김치
수제비



04 달달구리

#더위 물리치는 달콤함

- 주소 봉동읍 봉동동서로 134-3
- 영업 0:30~18:00 *17:30 마지막 주문
- 문의 0507-1378-5592
- 여름 대표메뉴



썸머 라떼

컵빙수

05 하나분식

#100% 국산콩 #최강 고소함

- 주소 봉동읍 봉동동서로 134-8 1층
- 영업 10:00~19:00 (격주 일요일 휴무)
- 문의 문의_063-261-0312
- 여름 대표메뉴



콩국수

10 시골 보리밥 · 국수

#정겨운 시골의 맛 #보리밥 맛집

- 주소 봉동읍 봉동동서로 134-47
- 영업 8:00~20:00 (매주 월요일 휴무)
- 문의 063-261-1368
- 여름 대표메뉴



잔치 국수



비빔 국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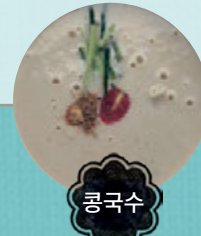


보리밥

11 빨간콩

#만경강뷰 맛집 #진한 콩국물

- 주소 봉동읍 봉동동서로 160-1, 2층
- 영업 11:00~14:00 (매주 일요일 정기휴무) *13:30 마지막 주문
- 문의 063-261-4289
- 여름 대표메뉴



콩국수



팔칼국수

봉동동서로



09 시장통 할멈국수

#순은 현지인 맛집 #국내산 팔

- 주소 봉동읍 봉동동서로 134-59
- 영업 9:00~18:00 (매월 7일, 매주 일요일 정기휴무, 일요일이 장날이면 정상영업)
- 문의 063-263-9322
- 여름 대표메뉴



팔칼국수

06 우리 국수

#since1988 #국수근본맛집

- 주소 봉동읍 봉동동서로 138
- 영업 10:00~19:00
- 문의 063-261-7281
- 여름 대표메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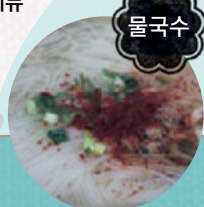


물국수

07 할머니 국수

#3대째 내려오는 전통맛집 #양푼국수

- 주소 봉동읍 봉동동서로 138-1
- 영업 (하절기) 10:00~20:00
- 문의 063-261-2312
- 여름 대표메뉴



물국수

08 봉동커피

#화끈한 달콤함 #생강빙수

- 주소 봉동읍 봉동동서로 134-81
- 영업 10:00~22:00
- 문의 063-262-0685
- 여름 대표메뉴



생강 팔빙수

생강 망고빙수

생강 블루베리빙수



만경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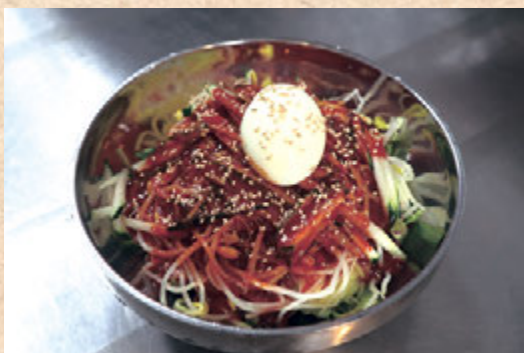


비빔장, 고명도 직접! 새마을금고 옆 새마을국수

물국수, 비빔국수, 왕만두, 동치미 열무냉국수와 열무비빔국수... 골라 먹는 재미까지



새마을국수 이병인·이길주 부부



인기메뉴인 비빔국수와 물국수.
새마을국수에 다녀간 먹방 유튜버 '먹두리'와 함께.

새로 생긴 봉동 하나로마트 왼편, 연둑빛 간판에 적힌 '새마을국수'가 눈에 띈다. 이곳은 초등학교 4학년 딸을 둔 부부가 운영하는 국숫집이다. 딸이 하교한 뒤 혼자 있을 시간을 줄이기 위해 장사 시간대가 짧고, 술을 팔지 않는 업종을 고민했다. 그렇게 국숫집이 떠올랐고, 지금의 가게 자리를 보고는 단박에 확신이 들었다.

새마을국수 사장 이병인 씨는 "새마을금고 옆이라 '새마을국수'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거기에 혼분식 장려운동으로 국수를 많이 먹었던 새마을운동 시기의 감성을 살리고자 양은냄비조명과 빈티지한 바닥으로 내부공사를 했다"고 말했다.

병인 씨는 장사를 위해 기본부터 요리 실력을 다졌다. 육수는 그의 장모님이 전수한 비법을 바탕으로 개발했고, 비빔장은 사과, 파인애플, 양파 등 과일과 채소를 갈아 직접 만들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고추장, 마늘, 매실액 등의 조합과 달리, 이 집은 과일을 베이스로 천연 단맛과 감칠맛을 살렸다. 또 사과즙을 활용한 묽은 소스 덕분에 부드럽고 쉽게 비빌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뒷맛도 텁텁하지 않고 깔끔하다.

"소위 말하는 '마법의 가루' 없이 정직한 맛을 내려고 한다"는 병인 씨는 새벽 6시면 가게에 나와

육수를 끓인다. 멸치 반, 새끼청어 반의 비율로 끓인 국물은 비린 맛 없이 진하다. 가게를 연 직후부터 6개월 동안 거듭해서 레시피를 연구하고 수정한 노력을 알아주는지, 그동안 다녀간 손님 중 맛없다고 한 이는 없었다.

새마을국수의 가장 인기 있는 메뉴는 새콤한 맛이 일품인 '비빔국수'다. 면발을 삶은 후 전분을 깨끗이 씻어낸 뒤 얼음물에 헹궈내서, 탱글탱글한 식감을 유지하는 것이 포인트다. 국수 고명으로 들어가는 오이, 상추 등 채소 대부분은 부부가 직접 농사지은 것이다. 병인 씨는 "손님들이 양껏 드시게 오이고추만 70줄을 심었다"고 웃었다.

지난 7월 5일은 새마을국수가 문을 연 지 1주년이 되는 날이었다. 먹방 유튜버 '먹두리'가 다녀간 것도 기억에 남지만, 부부가 더 자랑스러워하는 것은 단골손님들과 쌓은 인연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족 간 화목한 시간이 더 늘어났다는 점이 큰 선물이다. 개업 1주년을 기념하여 부부에게 앞으로 바라는 점을 물었다.

"봉동은 생강이 유명하잖아요. 거기에 국수도 함께 떠오르면 좋겠어요. 완주에 오면 '봉동 국수 한 그릇 먹고 가자.'라는 말이 생길 수 있도록 지금처럼 꾸준히 가게를 운영해 보겠습니다."





여덟가족이 꾸리는 **하찌식당**

문을 열면 맑은 풍경 소리가 반겨주는 ‘하찌식당’. 이영선 씨를 중심으로 가족이 함께 꾸려가는 퓨전식당이다. 가족이 모두 여덟 명이라 일본어로 ‘8’을 뜻하는 발음 ‘하찌’가 가게 이름이 되었다. 형제자매 중 첫째 영선 씨가 가게 운영 전반을 맡고, 둘째와 셋째 동생은 주방에서 손님들을 위한 식사를 정성껏 완성한다. 바쁜 날이면 레시피 개발에 참여한 어머니도 앞치마를 두르고 나와 손님들을 맞이한다. 가게 내부 곳곳에서 볼 수 있는 그림작가로 활동하는 다섯째 동생의 작품이고, 아기자기한 소품 하나하나에는 영선 씨의 취향이 가득 담겨 있다. 쓱 훑어보기만 해도 가족 간 분위기가 얼마나 단란한지 알 수 있게 된다.

퓨전식당답게 메뉴가 다양하지만, 그중에서도 소바가 하찌식당의 여름 대표 메뉴다. 영선 씨는 “한국 사람들 입맛에는 메밀 함유량이 많아서 툭툭 끊어지는 일본식 면보다 쫄깃한 식감의 면이 더 맞는다”며 맛있는 소바를 만들기 위해 겪은 시행착오를

여덟가족 솜씨 어우러진 사계절 소바 맛집

공유했다. 게다가 매일 새로 끓인 육수의 시원한 맛에 반한 손님들이 겨울에도 종종 찾고는 해서, 하찌식당에서 소바는 사계절 인기 메뉴로 자리 잡았다. 또 직접 만든 특제 소스와 큼직한 연어가 어우러진 연어덮밥도 인기가 많다.

어머니의 고향인 일본에서 이곳저곳 여행 다니며 맛있는 음식에 눈떴다는 영선 씨는 2020년도에 한국 가족들이 있는 봉동으로 돌아왔다. 코로나로 모든 것이 불안하던 2021년, 그는 “지금이든 나중에든 똑같은 것 같다”는 생각으로 식당 개업에 용기를 냈다. 그렇게 아파트 상가에서 시작한 작은 식당이 현재의 자리로 옮겨 와,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영선 씨는 앞으로도 지역에서 이웃과 상생하는 식당으로 운영하고 싶다고 한다.

“동네 어디에나 있을 법한 그런 밥집이 되고 싶어요. 아이부터 어르신까지, 누구든 편하게 와서 배불리 먹고, 따뜻한 추억을 만들어가는 곳이에요.”



사계절 인기메뉴로 자리잡은 소바와 식당 외관.

물국수 한 가지로 36년 한결같이

매일 새벽 4시, 봉동 우리국수의 하루는 고요한 불 위에서 시작된다. 76세 문향순 사장이 가게 문을 연 건 1988년. 봉동 생강골시장 초입에 국수집이 단 두 곳뿐이던 시절 ‘주부면 할 수 있다’는 마음으로 시작한 장사는 어느덧 36년째다.

“요리 잘하진 않아. 그냥 간 맞추면 되는 거지.” 그는 오랫동안 소면 하나로만 승부해 왔다. 메뉴는 단출하게 물국수 한 가지 사이즈는 소·중·대 세 종류다.

“국수는 5분이면 삶아. 국수 삶는데 뭐 그리 복잡한 게 있어.” 정갈한 한 그릇은 오히려 서두르지 않은 삶처럼 담백하다. 쉬는 날이면 매장 달력에 미리 표시해두는 것도 그의 방식이다. “안 써놓으면 손님들이 뭐라 해. 주일 빼고는 거의 다 열어.” 단골손님은 여전히 많다. 전주에서도 일부러 찾아오고 더운 여름이면 더 붐빈다. “여름에 벌어서 겨울에 먹고 살아. 요즘은 경기가 안 좋아서 손님이 좀 줄긴 했지.” 작은 가게는 협소하지만 국수를 먹기 위해 기꺼이 기다리는 사람들로 채워진다.

“기다린다고 짜증 내는 손님은 없어. 다들 국수 한 그릇 하러 오는 거니까.” 김치와 고추, 국수에 들어가는 재료는 모두 국산이다. 김치는 손수 담는데 국수와 잘 어우러져 손님들이 가장 먼저 손이 가는 반찬이다. “음식은 뭐든 간이 맞아야 돼. 재료만 좋으면 맛은 따라오게 돼 있어.”

매일 새벽 4시 가게 문을 열고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육수를 끓이는 일이다. 별다른 비법이랄 건 없지만 오랜 시간 손으로 익힌 그대로 정직하게 만들어진 맛에는 묵직한 힘이 있고 단순하지만 분명한 방식 덕분에 오늘도 국수 한 그릇엔 그의 시간이 고스란히 담겨있다.

오랜 세월 주방에 서다 보니 손목 관절은 약해지고 허리도 늘 아프지만 가게 문을 닫을 생각은 없다. “이게 내 일이잖아. 해오던 일이고 지금도 이걸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언제까지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힘닿는 데까지는 해야지.”

물국수 한 가지로 36년째 자리를 지켜온 문향순 사장.



우리국수 문향순 사장



김치수제비 인기로 김장만 천 포기



아줌마국수 박숙자 사장

한여름 해가 달아오르기 전인 오전 9시경, 수증기 뿜어내는 찜빵집을 지나쳐 '아줌마국수'를 찾았다. 이 자리에서만 18년째 국숫집을 운영해 온 박숙자(77) 어르신이 장사 준비로 바쁜 와중에 웃으며 반겨준다. 8시 무렵부터 가게에 나와 김치를 썰고, 새우와 멸치로 육수를 끓이는 것으로 숙자 어르신의 하루가 시작된다.

봉동 토박이라 어릴 적 봉동초등학교에 다녔던 시절, '할머니 국수'를 보고 자랐다면 그는 20여 년 전 생계를 위해 국수 장사를 시작했다. 처음 2년 삼례 제일마트 앞에서 장사하다가 마침 집 근처에 좋은 자리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지금의 자리로 옮겨왔다. 삼례 시절부터 인연을 맺은 단골손님들이 봉동으로 이사 온 가게를 따라와 지금까지도 꾸준히 찾아주고 있다.

"어떤 장사를 해야 할지 엄청 고민했지. 그러다가 내가 직접 담근 김치 맛이 좋다고 칭찬받았던 게 기억나더라고. 김치랑 잘 어울리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하다가 물국수랑 김치수제비를 팔기 시작했어." '아줌마국수' 맛의 비결은 직접 기른 재료에 있다. 오이고추, 파 등 음식에 들어가는 채소류 대부분을

숙자 어르신이 직접 농사짓는다. 특히 오이고추는 매일 아침 소쿠리에 가득 따와서 쓰기 때문에 늘 신선하다.

"농사지는 깨로 기름을 짜서 쓰는데, 깨 농사가 잘 안된 해에는 어쩔 수 없이 사다가 기름을 짜지. 그래도 절대 가공된 공산품은 안 써. 사람 손이 닿은 재료만 쓰던 게 버릇이 돼서 그래."

이렇게 정성스럽게 준비한 재료들이 만나 탄생하는 대표 메뉴는 물국수와 김치수제비다. 담백한 국수 한 젓가락에 아삭한 오이고추, 김치 한 조각을 얹어 먹으면 맛있다. 묵은지 김치를 아끼지 않고 넣어 칼칼하고 시원한 국물에 쫄깃쫄깃한 수제비가 잘 어울린다. 직접 담근 김치가 중요하다 보니 숙자 어르신은 매해 가을, 김치를 무려 천 포기씩 담근다고 한다. 그 정도는 해야 1년 내내 장사도 하고, 식구들 나눠 먹을 것도 있기 때문이다.

최근 건강 문제로 인해 숙자 어르신은 점심까지만 장사하고 있다. 아침 준비와 뒷정리는 혼자 하지만, 한창 바쁜 점심에는 딸과 며느리가 와서 홀 서빙과 설거지를 도와주고 있다.



메뉴판 앞에서 웃고 있는 박숙자 씨. 물국수와 김치수제비 차림.



완주시니어클럽 '빨간콩'

담백 고소한 어르신들의 콩국수



손님들의 한마디와 빈그릇이 보람이 된다는 완주시니어클럽 회원들.

완주시니어클럽이 2018년 문을 연 빨간콩은 만경강 뷰가 통창으로 시원하게 펼쳐지는 풍경마저 곁들이는 밥집이다.

메뉴는 계절과 손맛을 따라 구성된다. 여름철 대표 메뉴는 단연 콩국수. 5월부터 시작해 무더위가 끝날 때까지 꾸준히 손님들의 발길이 이어진다. 100% 국내산 콩으로 만든 콩물은 고소하고 진하며 탱글한 면발과 어우러져 한 그릇이면 든든하다. 단골손님들은 "담백하고 속이 편하다"며 매년 이맘때를 기다린다.

그 외에도 새알팔죽, 팔칼국수, 단호박죽, 흑임자죽 같은 죽 메뉴부터 쫄면과 보리밥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다. 모든 재료는 국내산이며 그날 사용할 분량만 준비해 당일 소진을 원칙으로 한다. 가게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문을 여는데 이른

아침부터 어르신들이 돌아가며 주방을 지킨다. 불린 콩은 그날 아침에 삶고 국물도 매일 새로 끓인다. 손님상에 오르는 음식은 그날의 정성 그대로다.

주방은 A팀, B팀으로 나눠 어르신들이 교대로 운영한다. 7월 둘째 주까지는 B팀의 순번. 반장 안정자 어르신을 중심으로 유정순, 전경자, 김근하 어르신이 함께 호흡을 맞춘다. 안정자 반장은 "콩국수는 콩 삶는 게 반"이라며 "몸은 힘들어도 즐겁고 이 일이 우리 보람이다"며 웃었다. 손님들의 한마디, 빈 그릇 하나에 하루의 피로가 사라진다고 했다.

단골은 늘 꾸준하다. 오랫동안 찾아오는 손님들이 새로운 손님을 데려오고 그렇게 '빨간콩'에는 자연스럽게 정이 쌓인다.



29년 내공의 여름 한정 녹진한 콩국수



하나분식 콩국수

하나분식을 운영하는 김영민(58) 씨는 29년째 이 자리를 지키고 있다. 여름이면 가게의 주인공은 단연 콩국수다. 5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국산콩 콩국수를 시작하는데 준비는 새벽 네 시부터다. 콩을 불리고 삶고 곱게 갈아내는 전 과정을 손으로 직접 한다. “콩이랑 팥이 정성이 제일 많이 들어가요. 1분만 늦어도 맛이 달라져요.” 하나분식 콩국수의 가장 큰 매력은 녹진하고 깊은 국물이다. 100% 국내산 콩만 사용하고 되직한 질감에 고소함이 배어 있어 콩국수 마니아들 사이에서도 오래전부터 입소문이 나 있다. “젊은 사람들은 묽은 걸 좋아하지만 중년층 이상은 걸쭉한 걸 더 좋아해요. 깊은 맛이 있으니까요.” 면은 메밀면을 쓴다. 국물과 어우러져 입안에서 부드럽고 쫄득한 식감이 살아난다. 전라도에서는 콩국수에 설탕을 타 먹는 문화가 흔하다. 영민 씨는 “콩 자체에 자연스러운 단맛이 있어 설탕을 많이 넣지 않아도 깊고 고소한 맛을 즐길 수 있다”며 “사람마다 입맛이 다르기 때문에 기본 맛을 해치지 않는 선에서 설탕이나 다른 양념을 원하는 대로 조절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한다”고 말했다. [☞]



시원한 디저트로 있어요!

달달구리 한 손에 썩! 달달한 컵빙수

Q. 어떤 곳인가요?

A. 완주 봉동에 위치한 작은 카페 ‘달달구리’는 여름이면 컵빙수로 입소문을 탄 맛집입니다.

Q. 어떤 빙수를 파나요?

A. 팔을 기본으로 한 전통 팔빙수를 판매합니다. 위에 통조림 체리를 올려 상큼한 포인트를 더했어요. 포장 주문이 많을 정도로 인기 있는 메뉴입니다.

Q. 특징은요?

A. 팔과 얼음의 비율이 적절해 달콤하면서도 깔끔한 맛이 특징입니다. 위에 통조림 체리가 올라가 상큼한 맛을 더해 더운 날 가볍게 즐기기 좋습니다.



봉동커피

생강과 팥빙수의 오묘한 조화

Q. 어떤 곳인가요?

A. 생강골시장 골목 안쪽에 위치한 ‘봉동커피’는 직접 원두를 블렌딩해 커피 맛에 차별화를 둔 카페로,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로컬 로스터리입니다.

Q. 대표 여름 메뉴는 무엇인가요?

A. 봉동 특산물인 생강을 활용한 생강팥빙수입니다. 부드러운 우유 얼음에 주인장이 직접 다려낸 생강청을 더해, 알싸한 단맛과 시원함이 어우러진 이색 메뉴예요.

Q. 어떤 손님들이 즐기나요?

A. 40대 이상 중년층 손님들에게 특히 인기가 많고, 전주·익산 등 외지에서 일부러 찾아오는 단골도 많습니다. 겨울에도 찾는 사람이 있을 만큼 사계절 내내 사랑받고 있어요.





여기저기서 풍덩~ 아 시원하다!!

제3회 동상계곡 물소리축제 현장

제3회 동상계곡 물소리축제가 7월 5~6일 이틀 동안 대아천계곡에서 열렸다.

올해로 3회를 맞이한 동상계곡 물소리축제는 한층 다채롭고 풍성해진 체험 프로그램과 문화공연으로 방문객들의 발길을 붙잡았다.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체험부스, 지역 농산물 판매 부스, 다양한 먹거리를 제공하는 푸드존 등이 축제장 곳곳을 가득 채웠다.

주무대에서는 신나는 댄스 공연과 어린이들의 환호를 자아낸 버블쇼가 펼쳐졌고, 관객 참여형 프로그램인 물

풍선 게임, 신발 멀리 던지기, 댄스 경연대회 등도 큰 인기를 끌었다. 특히, 축제의 하이라이트는 단연 대형 워터슬라이드와 수영장이었다. 무더위를 식혀주는 물놀이 공간은 가족 단위 방문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으며,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두가 함께 시원한 여름의 추억을 쌓는 장으로 자리잡았다.

한편, 동상계곡 물소리축제는 지역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력으로 이뤄지는 주민 주도형 축제로, 동상면의 여름을 대표하는 문화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환상적인 버블쇼엔 우와! 탄성 절로



農必生技
농부에게 필요한 생활기술학교

우리의 열정은 폭염보다 더 뜨거웠다

날마다 영상 35도를 넘는 폭염 속에 농촌생활기술을 배우는 이들이 있다.
전환기술사회적협동조합(상임이사 박용범)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림수산물교육문화정보원 귀농귀촌종합센터의 지원을 받아
지난 6월 30일~7월 5일 농필생기 5기 교육을 진행했다. 농부에게 필요한 생활기술을 배우는 과정인
농필생기(農必生技) 수강생들인 김정윤, 장수진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자.

간단한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서울에서 완주로 이주한 시각 예술가 겸 문화예술기획자입니다. 덧붙이자면, 어제는 기획자, 오늘은 백수, 내일은 예술가, 가끔은 디자이너로 살아가고 있습니다.(어쨌든 이 설명이 더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을 것 같네요.) 작년 여름 완주귀농귀촌지원센터에서 운영한 기획자 한달살기 프로그램을 통해 완주에서 지내게 되었고, 그 인연으로 지금까지 머물며 지역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알아가고 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는 ‘특이점’이라는 주제로 첫 개인전을 준비 중이며, ‘농업’과 ‘예술’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팀(이파리클럽 E8E Club)으로 함께 탐구하고 있습니다.

전환기술협동조합의 귀농·귀촌 맞춤형 교육인 농필생기(農必生技) 수업을 받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이웃으로 지내는 작가님을 통해 이 수업을 알게 되었는데요. 전시에 필요한 좌대, 액자 등을 만들 수 있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자세한 수업 내용을 찾아보게 되었어요. 농업과 예술을 연계한 프로젝트를 기획 중이다 보니, 관련 기술과 지식도 배우면 좋겠다! 싶었고요. 예전에는 주택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는데, 이곳에 와보니 단독주택을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더라고요. 언젠가 나도 단독주택에서 살면 어떨지 앞으로 살아갈 집의 모습을 상상하다 보니 그럼 앞으로를 위해 간단한 기술 정도는 배워두는 게 좋겠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수업을 신청한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솔직히 용접하는 제 모습을 상상하니 좀 멋있기도 하고 ‘기술을 배워서 주변에 좀 자랑도 해봐야겠다’ 이런 불순(?)한 동기도 수업을 듣게 된 이유 중 하나입니다.

꼭 배워보고 싶었던 과목이나 가장 기억에 남은 과목은 무엇이었는지.

용접은 쉽게 접할 수 있는 기술이 아니다 보니, 수업 시간표를 보고 가장 매력적으로 다가왔어요. 시작하기 전까지는 무섭기도 했는데, 그 두려움 덕분인지 해냈을 때의 성취감이 크게 느껴졌습니다. 목공도 다양한 도구와 작업 방식을

김정윤 씨(문화예술기획자)

“용접하는 멋진 내 모습 상상하며 교육신청했죠. 식사와 간식엔 무한감동”



배울 수 있어서 흥미로웠어요. 나무도 쇠도 힘만 준다고 모든 게 해결되는 것은 아니구나, 재료의 성질을 이해하고 맞춰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오히려 힘을 적게 들여야 제가 원하는 모습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의외로 재미있던 건 배관과 전기 수업이었어요. 선생님들께는 죄송하지만 사실 처음엔 시큰둥했는데요. 막상 해보니까 흥미로운 부분이 많았고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세상이 많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전기, 배관, 용접 등의 기술은 아직까지도 아저씨들 영역으로 여겨지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집에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빠부터

찾게 되고요. (문제는 저희 아버지도 잘 모르실 때가 많다는 거죠.) 지금 생각하면 이상하지만, 저는 그동안 한 번도 이런 기술을 알아야 한다고 생각해본 적이 없었고, 내가 배울 수 있다는 상상조차 안 해봤던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기대했던 수업은 역시 기대만큼 재미있었고, 기대하지 않았던 수업에서도 의외로 재미있어서 기술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다양한 과목 중 특히 용접교육은 무더운 날씨에 쉬운 과목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이렇게 개운한 샤워는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사실 날씨가 너무 더워서 수업 신청을 망설이기도 했는데요. 더위를 각오하고 수업을 신청해서인지 오히려 더워썩은 괜찮았던 것 같아요. 스톨 만들며 용접 기술을 완벽히 익히고 싶었는데, 시간이 한정되어 있어서 제발 용접을 더 하게 해줬으면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였으니까요. 덕분에 썰기를 만드는 대장간 수업에서는 이 용접의 열기보다는 한결 낫다고 느껴졌어요. 하하. 다른 수업에서는 시원한 실내에서 진행되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음료와 간식 그리고 식사도 정성껏 챙겨주셔서 감동이었어요. ‘내일은 어떤 메뉴일까’ 행복한 상상을 하며 무더운 여름날의 수업을 지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서 언급했듯, 올해 하반기에는 제 첫 개인전과 농업과 예술을 주제로 팀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멀고도 가까운 계획으로는 앞으로 제가 살아갈 집을 상상하며 완주 곳곳을 둘러보려 합니다. 저에게 적당한 집을 찾으려면(혹은 집을 지으려면?) 도대체가 저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더 깊이 돌아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번 수업에서 ‘적당한 기술’을 배웠으니 이제 삶에 적용시켜볼 때가 온 걸까요? ‘적당함’을 예술 속에서도, 그리고 제 삶의 방식에도 잘 녹여내며 즐거운 일들을 하나씩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농촌에서 필요한 생활기술’ 교육에서 용접 실습을 하고 있는 수강생들. 오른쪽 두 사람이 장수진(왼쪽), 김정윤 씨다.

장수진 씨(예술인)

“집중하니 더위도 못느꼈어요.
앞으론 결심만 하면
어떻게든 하긴 하겠구나 싶어요”



간단한 자기 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음악과 사운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장수진(활동명: 10to4)입니다. 완주에 살고 있는 친구의 소개로 2024 예술인 한달살기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도 완주로의 이사를 목표로 인연을 이어오다 지난 겨울 봉동으로 이사를 왔습니다. 한 달 살기 프로그램에 참여했을 때는 고산에서 지냈는데, 그때의 장기휴가 온 마음으로 일대를 탐방하던 경험과는 또 다르게, 생활의 리듬으로 슬렁슬렁 봉동과 주변을 돌아보고 있습니다.

전환기술협동조합의 귀농·귀촌 맞춤형 교육인 농필생기(農必生技) 수업을 받게 된 이유가 궁금해요.

3기 이후로 두 달여의 기간 동안 저도 여러 동기들이 생겼는데요, 이사와 작업공간에 대한 고려였습니다. 생활 공간 내에 작업 환경을 마련하는 것을 가장 선호하는 편인데 그러기에는 여러 문제가 있었거든요. 외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작업 공간도 불안정했구요. 그래서 아예 이사를 가는 것까지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얼마나 농촌으로, 주택으로 이사를 하고 관리를 할 수 있을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은 무엇일까?’를 해결해 보고자 신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은 과목은 무엇이었는지.

목공, 용접, 전기에 대해서 꼭 배워보고 싶었고 굉장히 즐겁게 참여했습니다. 전에는 설명을 들어도 이걸 내가 정말 할 수 있을까? 싶었는데 이제는 ‘결심만 하면 어떻게든 하긴 하겠구나’까지 왔네요. 아, 첫 번째날의 적정기술과 사례들에 대한 이야기, 여러 번의 시행착오들도 정말 재밌었고 기억에 남습니다. 앗, 따로 안내되지 않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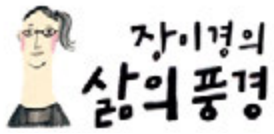
은 중요한 과목이 하나 더 있는데 ‘간식과 식사’라고. 지칠 수 있는 일정에서 매번 맛있는 간식, 식당을 준비해주셔서 어떨 때는 프로그램보다 간식이랑 식사가 더 기대되더라고요. 저는 로컬 맛집이 과목이 되어야 할 만큼 중요한 정보라고 생각하는데, 정말 행복했습니다.

다양한 과목 중 특히 용접교육은 무더운 날씨에 쉬운 과목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용접이야말로 정말 완전히 처음 접해보는 기술이라서 너무 기대를 했습니다. 가장 기억에 남은 과목이기도 하고요. 어떤 활동이든 무더위 속에서는 위험할 수 있겠지만, 안전 장비를 모두 착용한 상태에서, 새로운 걸 배우려고 너무 집중을 하다보니 더위가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더 위험했을 텐데, 정말 꼼꼼히 챙겨주셔서 감사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정밀하고 섬세한 작업이라서 신기하고 재밌었습니다.

앞으로의 계획도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앞으로의 계획은 지낼 곳에 대한 고민을 마치고, 그곳에 작업 공간을 직접 마련하는 것입니다! 나무 구조와 마감재, 조명 정도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농필생기와 관련된 앞으로의 계획은 그렇고, 개인적으로는 올해의 프로젝트 운영과 발표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농업과 기술, 그리고 예술을 연결하는 프로젝트를 운영하며 리서치를 하고 있고요, 연말에 전시를 계획 중입니다. 날씨와 관련된 프로젝트도 진행 중인데, 날씨와 감정의 요소, 상관관계를 고민하고, 그것을 전자 악기로 풀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즉흥 연주 잔치, 버스킹 등의 다양한 공연도 준비 중이고요. 🍷



화산면 죽동마을 유미 씨 이야기

다부진 팔뚝과 단단한 손의 이력

어디에서든 뿌리를 단단히 내리는 사람이 있다. 으스스대지 않고 조용히 주변을 살피며 어려움 있는 곳을 향해 주저하지 않고 성큼 다가가는 사람. 이렇게 자신을 표현한 글을 읽고 있을 유미 씨(1962년생)의 표정이 떠오른다. 손사래를 치며 '나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얼굴을 가리고 수줍게 웃고 있을 모습.

화산면 죽동마을 초입에 있는 첫 번째 집이 유미 씨의 집이다. 10년 전 화산면으로 귀촌해 지금의 터에 소박한 집을 지었다. 도시의 독립적인 공간에서 살던 이들이 터를 잡아 살기에 부담스러운 자리일 수도 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오고 가며 보는 곳, 담장도 없이 앞마당을 훤히 드러낸 집이지만 유미 씨는 그 점이 오히려 좋았다고 한다. 마당 한쪽에 비와 햇빛을 가릴 수 있는 지붕을 만들고 여러 명이 둘러앉아 쉴 수 있는 긴 테이블과 의자를 놓았다. 언제든 드나들어 차를 타마시거나 간단한 음식을 조리해 먹을 수 있는 버너, 주전자, 식기들이 놓여져 있는 이 공간을 동네 사람들은 '썸터'라고 부른다.

이른 새벽에 호미 하나 들고 밭으로 나가 늦은 저녁까지도 호미를 놓지 않는 유미 씨를 동네 사람들은 '황소'라고 부른다.

"남편은 여기다 잔디 심고 꽃 심고 좀 꾸미고 싶어했는데 나는 잔디는 소용없다, 땅이 아까워서 뭐라도 하나 더 심으려고 그랬죠. 땅을 일구고 사는 어린 시절 꿈을 드디어 이루게 된 거 같아요. 처음 귀촌해서는 밤 12시까지 밭에 나가 일했어요. 여기 길가 가로등 불이 환하게 켜지거든요. 그러니까 양파 같은 거 심고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일했죠. 이장님 부부가 오다가다 보면 황소 같이 일한다고, 당신 같은 귀촌인은 처음 본다고 그래요. 제가 일 욕심이 많아요."

노는 것보다 농사를 좋아하던 귀짜 어린이

유미 씨는 어머니의 고향인 전북 고창 바닷마을에서 어린 시절을 보냈다. 아버지는 그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다고 한다. 사람 좋기로 소문난



아버지는 여느 때처럼 남의 일 돕는다고 탈곡기를 돌리다가 밭에 상처가 났는데 치료도 못 해보고 파상풍으로 돌아가셨다고 한다. 아버지의 얼굴도 모른 채 스무 살이 되어서야 만난 고모들은 ‘지 아버를 똑 닮았다’는 말을 했다고 한다. 유미 씨는 자신의 이름을 지어준 아버지를 닮아 농사일을 좋아하고 기꺼이 남을 돕는 사람이 되었다.

“제가 시골 일을 엄청 좋아했거든요. 초등학교 다닐 때도 등교 전에 밭일하고 학교 가면 밭일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회한하지. 어른들이 같이 품앗이하자고 할 정도로 일을 엄청 잘하고 좋아했어요. 할머니 따라서 밭에 가서 호미로 풀을 뽑고 고구마, 콩 농사도 짓고 벼농사도 짓고. 그게 재미있었고 나름대로 놀이였던 거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밑에서 물질적으로는 풍족하게 살았는데 어딘가 모르게 그리움 같은 게 있었죠. 할아버지가 엄마를 멀리 안 보내시고 한 동네에다가 재혼시켰어요. 엄마가 보고 싶었지만 일부러 피해다니고 안 본 거 같아요.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엄마가 재혼해서 낳은 동생들한테 항상 큰 언니한테 잘 해야 된다는 말을 하셨대요. 엄마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모시다가 하늘로 보내드렸죠. 아무튼 어린 시절 외롭고 그리운 마음을 밭에 나가서 풀었던 거 같아요.”

타인을 돌보는 삶의 시작

도시와 농촌을 오가며 틈틈이 교회 봉사활동을 하던 중 지금의 남편을 만나 23살에 결혼을 했다. 원자력발전소에서 근무하던 남편의 직업 특성상 잦은 발령으로 울산, 울진, 영광 등 바닷가로 이주하며 살던 유미 씨는 좋아하던 농사를 지속할 순 없었지만 그 지역의 교회를 찾아가 봉사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제 어린 시절이 평범하진 않았잖아요. 엄마 아빠 없이 외로웠던 시절이었지만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자란 것이, 내가 누군가를 도울 수 있는 기반이 되었던 것 같아요. 풍족하게만 자랐더라면 타인을 잘 돌보지 못했을 거 같아요.”

화산교회에서 목회활동을 하는 여동생 덕에 화산면이 낯설지는 않았다. 화산으로 이주한 3년 동안은 집 근처 밭에서 농사를 짓고 마을회관에 모여 어르신들과만 시간을 보냈다고 한다. 어

린 시절부터 또래 친구들보다는 어르신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이 익숙한 유미 씨였다.

“마을회관에 놀러 가서 음식 해서 먹고 저녁에 어른들하고 화투도 치고 그렇게 3년을 지내고 나니 저를 마을 사람으로 받아들여 주는 느낌이었죠.”

마을에서 밭을 넓혀 교회를 다니며 화산면의 어려운 곳을 찾아 봉사활동을 하기 시작했다. 화산면 농협에서 주관하는 농가주부모임활동으로 일손이 부족한 농가를 돕기도 하며 지역에 자연스럽게 뿌리를 내리기 시작했다. 현재는 완주노인복지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로 활동 중이다. 유미 씨는 정해진 업무 외에도 지역의 봉사단체 3040청년회와 협업하여 요리하기 어려운 취약계층의 어르신들을 배려해 직접 조리부터 배달까지 하고 있다.

열심히 봉사활동을 하던 유미 씨는 올해 봄, 전북특별자치도지사 표창장을 받기도 했다. 쑥스러워서 주변에 알리지도 않고 가족들의 조용한 축하만 받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나 교회 갔다가 5시에는 밭으로 가요. 풀 뽑고 열매도 따고, 여기가 길가여서 어르신들이 보니까 더 열심히 풀 뽑고 가꾸는 거죠. 제가 죽동마을 노인회에 총무를 맡았거든요. 그래서 어르신들 살림을 제가 해요. 그리고 저희가 올해 마을 가꾸는 사업을 하나 따냈어요. 쟁쟁한 마을이 열 군데 넘게 신청했어요. 3개 마을만 선정했는데 우리 마을이 되었어요. 마을 돌담도 쌓고 장마철 하천 범람위험이 있어서 보수공사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둘레길 조성이에요. 우리 마을 앞이 바로 도로여서 어른들이 이 마을 찾길로 계속 다니시는 거예요. 차가 썩썩 달리는데 위험하니까 하천으로 둘레길을 조성해야겠다는 생각을 한 거죠. 꽃도 심어놓고 걷다가 힘들니까 벤치도 놓고 비가림 시설도 할 거예요. 가을쯤 되면 완성이 될 것 같아요.”

유미 씨의 다부진 팔뚝과 단단한 손이 그가 살아온 인생을 말해준다. 할머니를 졸졸 따라다니던 어린아이는 장난감을 가지고 놀 듯 호미를 들고 땅에서 놀았다. 그 손으로 흙을 만지고, 심고 정직하게 열매를 거둬들였다. 땅은 허기진 유미 씨를 달래주는 벗이었고 단단해진 유미 씨는 이제 기꺼이 어르신들의 벗이 되고 싶다고 한다.



죽동마을 초입 유미 씨의 집. 대문 없는 집에는 누구나 반기는 침터가 있다.

늘 그렇듯 침터에 둘러앉아 간식을 나눠먹는 이웃들. 유미 씨가 농사지은 것들로 푸짐한 간식상이 차려졌다.

실험하고 도전하는 상상력

회화작가 하태훈

하태훈 씨는 회화 작가다. 그가 본격적으로 유화로 회화 작업에 몰입한 건 대략 4년 전부터다. 지극히 내성적이었던 그는 아주 어린 시절부터 혼자만의 공간에서 그림을 그리며 놀았는데 집중하고 몰입할 수 있다는 게 좋았다. 미대 진학을 준비하던 누나의 교재가 그의 장난감이었다. 흘러가듯 예고와 미대에 진학해 회화를 전공했다. 하지만 그는 졸업 후 영화 속 특수효과(FX)를 만드는 컴퓨터 그래픽 분야에 뛰어든다. 원체 영화를 좋아했고 호기심도 왕성했다. “불 나옴과 물 뿌리고 영화 안에서 ‘연기 좀 추가해주세요’하면 만들어 주는 그런 작업이었어요. 고됐지만 일 자체는 무척 재밌었어요. 근데 이게 의외받은 일이지 제 창작은 아니잖아요. 어느 순간부터 다른 일을 해보고 싶더라고요.” 3D 프린팅을 활용한 슬립 캐스팅 도자기가 마음에 쏙혔다. 슬립 캐스팅은 몰레나 핸드빌딩이 아닌 석고 틀(몰드)에 액체 점토(슬립)를 부어 기물을 만드는 기법이다. 3D 프린팅 도자기 이후로도 전시시설 운영관리, 문화 기획 등 그의 탐색과 도전은 계속됐다. 하지만 늘 허기가 뒤따랐다.

“새로운 일이 주는 매력에도 불구하고 항상 한계를 느꼈어요. 더 집중하고 노력하면 분명 그 일에서 큰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싶으면서도 거기에 갇힌 느낌이 들더라고요. 확장성의 한계라고 할까.” 그런 면에서 순수 회화는 그 어떤 미술 장르보다 표현의 범위가 넓고 확장성이 컸다. 결국 회화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다.



유화를 작업 재료로 선택한 이유가 뭐가

발색이 뛰어나고 원하는 표현을 최대화할 수 있는 재료가 유화라고 생각해요. 컴퓨터 그래픽이나 3D 프린팅 같은 작업은 우연적 효과가 거의 없어요. 계획한 대로 나오죠. 유화는 의도하지 않은 결과물이 나올 때가 많은데 저는 이게 되게 재밌어요.

경험한 일들이 창작에 도움이 되나

컴퓨터 그래픽이나 3D 프린팅은 입체 작업이잖아요. 공간과 조형을 깊이 이해하는 계기가 됐어요. 모두 회화 작업에 접목할 수 있습니다. 표현능력 도구를 몇 개 더 가지게 된 셈이죠.

어떻게 작업하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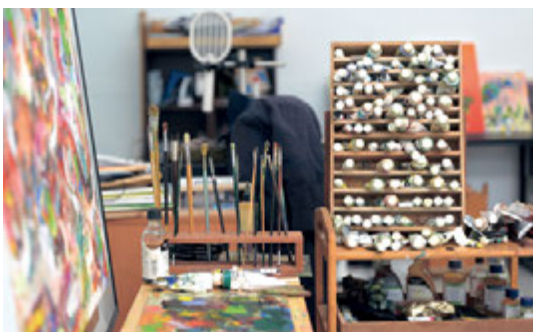
1년 단위로 도전 주제를 정해 작업하고 있어요. 1년 차 주제는 '나는 어떤 사람인가'였어요. 내 안에 있는 그 생각을 끄집어내는 작업이었죠. 자화상도 있고 가족에 관한 것도 있어요. 당시 치아 교정을 하고 있을 때여서 교정기 그림이 많아요. 2년 차에는 제 주변의 환경이나 요소를 깊이 바라보고 싶었는데 아이템 찾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겨우 찾아낸 게 옛날 영화였습시다. 스쳐 가는 영화 속 장면을 포착해 아이디어를 얻곤 했어요. 지금은 3년 차입니다. 믿음에 관한 이야기를 해보려고요. 사람들이 왜 무속신앙에 빠져드는지 궁금했어요. 삼두매라고 머리 셋에 다리 하나 달린 상상의 동물을 소재로 풀어가고 있는데 아직 작업이 많지 않아요.

주제에 따라 스타일도 영향 받나

그럼요. 첫 번째 주제를 작업할 때는 캔버스 천에 그림을 그린 다음 꾸기는 작업을 많이 했어요. 그러면 우연히 찍히는 효과들이 나와요. 물감이 엉키면서 데칼코마니 같은 효과가 나타나는데 자연스럽진 않아요. 이 우연한 효과를 통해 작업을 전개해 나갔죠. 두 번째 주제는 조금 더 클래식하게 대상을 관찰하고 특징을 찾아내 회화 본연의 방식으로 그렸어요. 세 번째 주제는 이제 시작 단계다 보니 연구 중입니다. 공간을 크게 바라보다가 협소하게 바라보면서 그 공간만을 다시 그리고 다시 전체적으로 새롭게 바라보면서 공간 안에 공간을 만들어내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 아직 정리가 안됐어요.

작품을 통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

작업할 때는 관람객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관람객에게 이런 메시지를 전하고 싶다가나 이런 의미로 내 작품을 감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 순간 거기에 매몰되는 것 같아요. 앞서 말했듯 제 작품은 의도를 벗어나는 일이 빈번할뿐더러 되레 그런 자연스러운 방식의 작업이 제가 추구하는 방향성에 맞거든요.



작품을 잘 감상하려면

먼저 그냥 보는 거예요. 와서 그냥 한 번 쪽 지나가면서 보는 거죠. 그러면 자신의 생각이 만들어지겠죠. 그다음에 팸플릿을 보거나 작가의 설명을 들으며 한 번 더 보는 겁니다. 처음 그냥 보고 느낀 생각이랑 두 번째는 분명 다르겠죠. 그래야 다양한 해석을 할 수 있고 관람객의 상상력이 끼어들 여지가 생기는 것 같아요.

지금까지의 작품 중 하나를 고른다면

'자화상'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제 작품은 대개 캔버스 틀을 해체해 천 상태로 돌돌 말아서 보관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은 캔버스 틀 상태 그대로 보관하고 있어요. 열 개를 그리면 그중 하나 마음에 들기 어려운 데 이 작품은 좋더라고요. 저 자신을 솔직하게 잘 표현한 것 같아요. 틀어진 손가락으로 소주를 한 잔 먹으려고 하는데 술이 꺾이면서 그걸 먹지 못하고 있어요. 피부질환이 있어 굵은 자국도 보이고 치아 교정기를 하고 있어 답답한데 옆에는 키우는 고양이가 붙어서 계속 야옹야옹하는 그런 정신없는 상황의 그림입니다. 오래 걸린 작업도 아닌데 보고 있으면 좋아요.

전시회 제목이 흥미롭던데

개인전을 두 번 열었어요. 첫 전시가 '기준점'입니다. 저의 첫해 도전 주제가 저에 대한 탐구였잖아요. 내가 바라보는 나와 세상이니 내가 기준점이라는 생각을 했고 그걸 전시 제목으로 삼은 거죠. 두 번째 전시 제목은 '기필코, 거대한 고유'인데 이 건 동료이기도 한 아내의 도움을 받았습시다. 주변 환경이나 요소를 테마로 했던 두 번째 과제의 작품 전시였는데 아내가 이 제목을 제안하더라고요. 고유라는 단어가 그 사물에만 특별히 있는 어떤 것이잖아요. 아내가 제 작품에서 그와 같은 걸 봤다면 기분 좋은 일이지요.

예술가가 가져야 할 덕목

예술가에게 자기복제는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봐요. 계속해서 강화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아무래도 같은 작업을 오래하다 보면 관성화돼서 못 벗어나는 경우가 생기는 것 같아요. 그 결과물이 좋을수록 다른 도전을 두려워하게 되는 거죠. 리스크가 크니까요. 저는 조금 더 실험적이고 도전적인 작업을 많이 하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예술가의 덕목 중 하나는 도전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이루고 싶은 목표

죽을 때까지 그림 그리며 사는 게 목표예요. 쉬운 일은 아니죠. 🍵

들풀이 보물이 되는 ‘소란스런 풀학교’

우리 주변의 약초와 허브에 대해 알아보고, 활용법을 배우는 ‘소란스런 풀학교’가 6월 29일 완주미래행복센터에서 열렸다.

이번 교육은 완주군 시군역량강화사업의 주민수요맞춤형 교육의 일환으로 진행됐다. 완주군 역량강화 전담기관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킹 지역 주민들의 수요를 파악하여 주민들과 함께 이번 교육을 주관했다.

이번 교육은 ‘허벌리스트 되기’ 이론 교육을 시작으로, 풀투어와 풀채집으로 이어졌다. 익숙하게 보던 풀의 이름과 용도를 알게 되는 과정은 일상 속 보물찾기와도 같았다. 참가자들은 더운 날씨에도 즐겁게 풀을 관찰하고 채집했다. 오후 시간에는 채집한 허브와 약초를 활용해서 향신 오일과 소금, 모기퇴치제 등을 만드는 실습시간이 이어졌다. 구슬이 서말이어도 꿰어야 보배인 법, 허브와 약초를 활용하는 무궁무진한 방법들을 배우며 참가자들은 풀의 진짜 가치를 배웠다.

이번 교육에 참여한 한 교육생은 “허브와 약초가 지천에 널려있어도 몰랐는데, 이번 교육을 통해 눈을 뜬 기분이다”며 “앞으로 풀을 관찰하고 활용하면서 농촌생활의 즐거움이 더 커질 것 같다”고 소감을 말했다.

풀채집



모기퇴치제 만들기



향신오일과 향신소금 만들기



잘 배웠습니다!



질문이 있는 이달의 책

심미아 지음 | 그림보 | 24쪽 | 2007 | 8,100원

집에 가는 길



“석양이 질 무렵 언덕 위의 나무를 향해서 셋이 달리기를 했어요. 앨런이 말을 꺼내더니 갑자기 달리기 시작했고 미카사는 일부러 앨런보다 늦게 달렸죠. 난 당연히 꼴찌였어요. 하지만 그날은 바람이 따스해서 그저 달리는 것만으로도 기분이 좋았어요. 낙엽이 휘날렸죠.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기서 셋이 달리기를 하기 위해서 태어난 게 아닐까 하고요. 비 오는 날 집에서 책을 읽을 때도, 내가 주는 열매를 다람쥐가 먹었을 때도, 모두와 함께 시장을 돌아다녔을 때도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 아무것도 아닌 순간들이 아주 소중하게 느껴졌죠.”

“아아, 그래! 그냥 던지고 받고 또 던지고... 그걸 되풀이할 뿐 아무런 의미도 없지. 하지만 맞는 말이야, 난 그냥 계속 캐치볼을 하는 게 좋았던 거네.”

진격의 거인 완결편 중 아르민과 지크의 대화이다. 세계를 구하기 위해 거인으로 변할 수 있는 유전자를 지닌 에르디아인 모두를 안락사시키려던 지크와 역시 세계를 구하기 위해 앨런을 위시한 거인들의 땅울림을 멈추려는 아르민은 절체절명의 순간에 이런 대화를 나눈다. 한순간도 허튼 생각할 여지가 없다. 그런데 엉뚱하게 아르민은 친구들과 골목을 달리던 순간을, 지크는 누군가와 캐치볼을 주고받던 순간을 떠올린다.

책 속 아이는 집으로 가는 길에 만난 찰나들에 집중한다. 짧은 시간이지만 친구들과 축구를 했고 바람이 땀을 말려 준다. 나무와 새와 빨간 노을과 노을에 물든 동네를 본다. 아이는 그 풍경이 아름다워서 계속 보았다고 말하지만 실은, 아이의 모습이 아름답다. 아이는 예술작품도 아닌, 보석도 아닌, 바람과 해와 땀과 친밀함에서 아름다움을 느낀다. 어른이 될수록 잊기 쉬운 것들이다. 아니, 실은 보이지 않는다. 볼 시간이 없다.

나만 그럴 수도 있겠지만 그 소중함을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거기에 머물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소중함을 알려주기 위해 코로나19, 12·3 반란처럼 시기적절하게 위기가 와 주어야 하는 것일까. 바쁘다는 말로 가리는 삶의 아름다움을 우리는 언제나 다 찾아볼 수 있을까.

바쁜 순간 잠시 멈춰서 하늘도 보고, 나무도 보고, 친구의 얼굴을 보는 것은 어떨까. 힘들 때, 위기가 찾아왔을 때 어쩌면 그런 짧은 순간의 기억들로 인해 새로운 의지가 생겨나고 유연한 길로 방향을 바꾸게 될지도 모른다. 이 책이 아닐지라도 좋아하는 책을 (읽지 않더라도) 만지작거리는 것으로 아름다운 기억들을 쌓아보는 것은 어떨까.

감나무책방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고산면 남봉로 134 ☎ 063-262-3111

* 주제를 비롯한 모든 내용은 지극히 사적인 말하기임을 밝힙니다. | 신작 중심으로 소개하지 않습니다.

매일 설레

#73 항상 듣는 말인 걸.



설레는 제주에서 그림 그리고 디자인한다.

촌티작렬 시골잡지
완두콩 구독문의
☎ 291-8448

운주면 환경 지킴이 '환경반장' 13명 탄생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가 주관한 '환경반장 양성교육'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되면서, 운주면 지역환경 보호의 새로운 전환점을 맞게 됐다. 지난 6월 20일 운주면에서 종료된 이번 교육과정을 통해 모두 13명의 환경반장이 배출되어, 향후 지역 마을환경교육 활동의 핵심 역할을 담당할 예정이다.

6회차로 구성된 교육과정에서는 농촌 쓰레기 문제의 현황과 해결방안,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의 실무 교육, 자원순환 활용 우수사례로 진안군 봉곡마을 사례 분석, 소양면 환경반장의 실제 활동사례 공유 등 이론과 실무를 아우르는 다양한 주제가 다뤄졌다. 또한 교육생들이 직접 환경반장 교안을 작성하고 시연하는 시간을 통해 실질적인 교육 역량을 기를 수 있었다. 특히 교육생들은 이론 교육에 그치지 않고 운주면 내 각 마을을 직접 돌며 환경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마을 대표들과 인터뷰를 통해 쓰레기 배출 및 관리 실태를 점검하는 등 실천 중심의 활동도 병행했다. 환경반장들은 수료 이후에도 후속 모임을 통해 환경교육 시연 기회를 얻고, 실제 마을환경강사로서 주민들과 효과적으로 소통하는 방법을 습득할 예정이다. 이를 바탕으로 주민 스스로 마을의 환경문제를 인식하고 능동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도록 돕는 참여형 교육 모델이 운영될 계획이다.

이번 교육을 수료한 한 환경반장은 “불법 소각이나 잘못된 분리배출 등 농촌지역 환경문제의 심각성을 절실히 깨달았다”며 “앞으로 운주면을 지키는 환경반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활동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완주사회적경제네트워크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완주군 역량강화사업 완료지구 활성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됐다”며 “앞으로도 운주면 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하며 주민역량강화사업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양생원과 일 년 열두 달



#윤대라 #artistDERA #올랄라선녀마마
윤대라는 홍익대학교에서 동양화를 공부하고
그림 그리는 화가가 되었어요.
고양이 양생원, 멍멍이 견재, 꼬꼬닭 함께
최총우들 우당탕탕 원주살이 12년 차.
<https://www.instagram.com/artist.dera/>



흘러가는 마음의 끝에서

이종민의 다스림의 음악

(19) 최백호의 [바다 끝]



스캔하시면 음악이 재생됩니다.

먼 아주 멀리 있는 저 바다 끝보다 까마득한 그곳에 태양처럼 뜨겁던 내 사랑을 두고 오자 푸른 바람만 부는 만남도 이별도 의미 없는 그곳에 구름처럼 무심한 네 맘을 놓아주자

아름다웠던 나의 모든 노을빛 추억들이 저 바다에 잠겨 어두워지면 난 우리를 몰라 질은 어둠만 남은 시작도 그 끝도 알 수 없는 그곳에 물결처럼 춤추던 너와 나를 놓아주자

아름다웠던 나의 모든 노을빛 추억들이 저 바람에 날려 흐트러지면 난 우리를 오 아름다웠던 나의 모든 노을빛 추억들이 저 바다에 잠겨 어두워지면 난 우리를 몰라

바다 끝에 가보셨나요? 쉽지 않은 일이지요. 그러나 극한 슬픔에 잠기면 바다 끝이 아니라 그 너머까지 갈 수 있습니다. 눈물의 노를 저어 “까마득한 그곳”을 찾아 나서게 됩니다. 최백호의 노래 <바다 끝>은 바로 그 도달할 수 없는 자리에서 시작합니다. 상실과 이별의 아픔을 지우기 위해서입니다. 바다는 단순한 자연의 일부가 아니라 망각이라는 감정의 가장자리입니다. 태양처럼 뜨거웠던 사랑의 기억을 지우는 장소이며, 돌이킬 수 없는 감정을 흘러 넘어가게

하는 경계입니다.

벽 혹은 허공을 바라보며 앉아 노래하는 최백호는 격렬하게 울지 않습니다. 목소리를 높이지도 않고 애원을 하지도 않습니다. 그저 낮고 단정한 톤으로 ‘내 사랑을 두고 오자’, ‘네 마음을 놓아 주자’고 읊조립니다. 그 어조는 마치 오랜 세월을 견뎌온 이의 그것처럼 고요하고 담백합니다.

그러나 그 담백함이 바로 이 노래의 가장 큰 울림 비결입니다. 모든 이별은 차분한 얼굴로 찾아 오지만 그 속은 태풍처럼 무너집니다. <바다 끝>은 바로 그런 이별의 이면을 담백하게 펼쳐 보여줍니다.

“바다에 잠겨 어두워지면 나는 너를 몰라”라는 노랫말은 스스로의 기억마저 지우려는 심경의 다른 표현입니다. 사랑했던 기억을 억지로라도 봉인하여 스스로를 낫설게 만들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정말 잊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은, 아직 완전히 잊지는 못한 사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잊었다면 굳이 그리 말할 필요조차 없을 테니까요.

이 노래의 후렴 “난 우리를 몰라”는 그래서 더욱

슬프게 다가옵니다. 그것은 다짐이 아니라 되념입니다. 반복하면 더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그건 망각을 위한 것이 아니라 기억을 차곡차곡 눌러 담은 방식입니다.

피아노 반주는 이 역설의 감정을 정교하게 감싸줍니다. 초반의 잔잔한 선율은 마치 밀려왔다가 다시 빠져나가는 파도 같습니다. 차분한 리듬이지만 그 아래에서는 뒤엉킨 감정들이 소용돌이치고 있습니다. 점점 고조되는 선율은 이별의 덩어리가 서서히 감정의 절벽으로 치닫는 순간을 포착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어느 구도 모르게 무너지는 듯한 순간, 바로 그 순간에 최백호의 목소리는 다소곳이 노래를 마무리합니다. 흘러간 감정들을 애써 잡아두지 않고 그저 흘러가게 두려는 듯.

그래서 이 노래는 단순한 이별의 노래가 아닙니다. 그것은 삶에서 반드시 겪게 되는 상실의 방식에 대한 한 편의 명상입니다. 사랑이든 우정이든 혹은 젊음이든, 우리는 살아가면서 수많은 것들과 작별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작별은 대부분 눈물보다는 침묵으로, 절규보다는 낮은 속삭임으로 이뤄집니다. <바다 끝>은 바로 그 속삭임을 담은 노래입니다. ‘이제 괜찮다’는 말보다 더 깊은 ‘그저 흘러가게 두는’ 마음 다스림의 고백인 것입니다.



이종민은 40여 년간 지켜온 대학 강단에서 물러나 고향 완주에서 인문학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마을 소식

화산면 삼계탕 나눔 행사로 어르신 건강 챙겨

화산면이 지난 6월 26일 지역 저소득층 어르신 200명을 대상으로 삼계탕 나눔 행사 ‘참! 좋은 사랑의 밥차’를 성황리에 마무리했다.

이 행사는 완주군자원봉사센터와 (사)사랑의연탄나눔운동 이사장의 달 후원으로 마련됐으며, 완주군노인복지센터, 생활돌봄지원사, 자발적으로 참여한 초등학교 학부모,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공동위원장(임미정·황호년) 등 다양한 지역 구성원이 힘을 모았다.

봉사자들은 어르신들의 식사 편의를 위해 삼계탕 고기를 직접 손질해 대접했으며, 폭염 행동수칙과 무더위쉼터 안내 자료도 함께 배포하여 건강한 여름나기를 도왔다. 행사일 전후로는 간단한 건강 체크와 복지상담도 병행해 어르신들의 안전과 복지 향상에 기여했다. 어르신들은 맛있는 삼계탕을 즐기며 환한 미소를 지었고, 봉사자들은 따뜻한 나눔의 보람을 느끼며 행사를 마무리했다.

완주군 관계자는 “지역사회가 한마음으로 어르신들



위한 나눔에 동참해 의미가 크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복지 지원과 나눔 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이준희 마을기자(화산면 수실마을)

인간의 삶이 어떻게 종착역에 이르게 되는가

김영혜의 영화산책

(6) 아무르 Amour



미카엘 하네케 감독, 장 루이 트랭티냥 주연, 프랑스, 2012

유기체인 이상, 모든 인간은 죽는다.

사고, 재난, 전쟁, 질병 등은 인간에게 예기치 못하는 죽음을 가져다준다. 이 모든 것들을 ‘운 좋게’ 피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종국에는 어김없이,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노화가 찾아온다. 어느 날 갑자기 생명 활동이 정지해서 깔끔하게 생을 마감할 수 있다면 좋으련만... 문제는 그렇지 못하는 데 있다. 미세한 균열이 시작되고, 이 균열은 점점 커지면서 마침내 터진 듯처럼 우리 삶을 파괴한 후에야 끝을 보게 된다.

음악가 출신인 노부부의 평범한 아침 식탁에서 이 균열은 시작된다. 남편은 다정다감하고 아내는 살짝 무뎠다. 두 사람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아침을 먹는다. 갑자기 아내가 말이 없어진다. 이상하게 생각한 남편이 아내를 쳐다보자, 아내는 표정도, 움직임도 멎은 채 멍하게 앞을 응시하고 있다. 놀란 남편이 수건에 물을 적셔 아내 얼굴에 갖다 대보지만 아내는 미동이 없다. 당황한 남편은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집을 나가려는데, 아내의 정신이 돌아온다. 아내는 아무것도 기억하지 못한다. 그러나 두 사람은 깨닫는다. 노인이라면 누구나 두려워하는 것—

삶의 균열이 시작되었다는 것.

뇌졸중 수술 끝에 몸의 오른쪽이 마비된 채로 집에 돌아온 아내에게 남편은 진심을 담아 말한다. “당신이 집에 돌아와서 너무 좋아.”

아니었다. 느릿느릿하지만 각자 자기 역할을 해 나가던 일상은 완전히 무너진다. 남편은 아내를 씻기고, 옮겨주고, 음식을 해서 떠먹여 주고, 장을 보고, 음악을 틀어주고, 지극정성으로 아내를 돌본다. 그러나 아내는 점점 악화한다. 언어를 잃고, 기억을 잃고, 마침내 대소변을 못가리게 된다. 두 사람의 단정하고 온화했던 모습은 이제 간데가 없다. 아내는 병마에 시달리며 참혹한 모습으로 변해가고, 간병에 지친 남편은 붕두난발이 되어 있다.

이 영화를 요즘 한국사회에서도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간병살인’을 다룬 예로만 거론하기에는 감독이 너무 뛰어난 거장이다. 미카엘 하네케는 당대 프랑스 사회의 심각한 사회문제들을 감정을 신지 않고 담담하게 정면돌파하는 감독으로 유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큰 울림을 준다. 그것은 아마도 감독이 우리 인간들의 삶에 대한 예리한 통찰력과 더불어 연민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 듯.

주연을 맡은 장 루이 트랭티냥은 저 유명한 로맨스 영화 <남과 여>의 주인공이기도 하다. 그 영화의 주인공이었던 중년남녀가 결혼을 해서 삼십년 지난 후의 모습을 이 영화에서 보는 듯하다. <남과 여>가 달콤하고 설렘이었다면, <아무르>는 ‘사랑’이라는 영화 제목과는 달리 누구도 피할 수 없는 인간의 삶이 어떻게 종착역에 이르게 되는가를 참으로 현실적으로 그리고 있다.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무거운 마음 한편에 이런 생각이 든다—모두의 종착역이 똑같이 ‘죽음’이라면, 결국 ‘어떻게 사느냐’가 인간 각자의 차이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닐까.

김영혜는 부산에서 태어나 여기저기 떠돌다가 학생들을 가르치느라 전주에 이십 년 넘게 정착해 살았다. 얼마 전 은퇴해서 완주에 작은 땅을 일구며 살고 있다.

마을 소식

완주군산림조합, 저탄소 식생활 쿠킹클래스 열어

완주군산림조합(조합장 임필환)이 지난 7월 9일 산림문화복합센터에서 임업인이 재배한 로컬 임산물을 활용한 ‘산(山)요리, 들(野)요리’ 쿠킹클래스를 실시했다. 이 프로그램은 전북특별자치도의 탄소중립 실천 문화 확산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지구를 살리고 인류의 미래를 약속하는 저탄소 식생활 문화확산 캠페인이다. 요리 체험자로 참여한 지역주민과 조합원들은 산(山)에서 수확한 취나물과 표고버섯을 이용하여 묵나물 김밥을, 들(野)에서 수확한 콩을 원료로 하는 두부 두부 표고버섯 지짐, 두부샐러드를 만들었다. 완성된 요리는 각 참여자 가정으로 가져가, 가족과 함께 나눠 먹으며 저탄소 식생활로 탄소중립을 실천했다.

완주군산림조합 임필환 조합장은 “우리 가정에서 탄소 발자국을 줄이는 로컬재료를 활용하고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한 임산물을 사용하는 등의 탄소중립을 실천하면서 기관에서는 이를 홍보하고 교육하는 역할에 동참할 수 있어서 기쁘다. 앞으로도 좋은 사업을 발굴하여 지역민과 임업인의 상생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완주군산림조합은 산림문화복합센터를 개소하고 지역민과 함께하는 산림문화를 선도적으로 실천하는 완주의 대표적 기관으로 주요 사업으로는 산림경영지도사업, 산림사업지원, 상호금융·산림사업종합자금 등이 있다.



사진 출처: 완주군산림조합

찰나의 기쁨과 더 큰 고통의 업

농/촌/별/곡



차 남 호

누구에겐지 모르겠지만 미안하다. 지리산 뱀사골을 찾아 더위를 식히고 오는 길이다. 이 찜통더위가 누군들 힘겹지 않겠느냐는 오래전에 마련된 일이었다. 붓다의 가르침을 헤아리려 모인 도반들과 더불어 나선 길. '책거리'가 핑계가 되었다.

이른 아침 길을 떠났는데도 도착하는 순간 그곳은 벌써 이글거리고 있었다. 탐방로를 얼마 걷지도 못했는데 땀이 비 오듯 쏟아진다. 가던 길을 멈추고 계곡물에 한참 동안 발을 담그고 머물렀다. 역시 계곡물은 얼음처럼 차가웠다. 발을 담그고 머잖아 땀이 식었다. 언제까지고 그 자리에 붙박이고 싶은 심정이라니.

에어컨이라는 파괴적 이기가 아니라도 이 무더위를 다스릴 수 있는 실낱같은 길이 있다는 것. 그것

이 다름 아닌 자연 속에 있다는 사실에 일순 가슴이 먹먹하다. 하지만 그 자연은 멀기만 하다. 거기에 다가서려면 너무 많은 배기가스(온실가스)를 내뿜게 된다. 찰나의 괴로움을 덜기 위해 더 큰 고통의 업을 쌓는 셈이니 결국은 어리석은 짓이다. 그러니 안타깝고도 미안해지는 것이다.

계곡을 뒤로 하고 근처에 자리 잡은 실상사를 찾았다. 그곳 전각에 가부좌를 튼 불상은 아무 말이 없다. 보광전 앞뜰에서 있는 석등만이 자등명법 등명(自燈明法燈明, 스스로를 등불로 삼고 법을 등불로 삼으라)의 가르침을 던지시 일깨우는 듯하다. 그렇다. 자업자득이거늘 누굴 탓하고, 누구에게 길을 구하겠는가. 결국은 저 빛나는 물질문명을 사랑해 마지않는 인류 스스로 찾아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아직 해답은 없고, 갈수록 상황은 나빠지고 있다. 아직 7월 초인데 더위도 너무 덥다. 지난해는 7월 중하순이 되어서야 섭씨 30도를 넘어섰던 최고기온이 올해는 아예 6월 말부터 이어지고 있다. 기상뉴스는 이런 현상을 두고 북태평양 고기압이니, 유라시아 폭염열차 따위의 용어를 빌어 설명하고 있다. 이상고온이 휩쓸고 있는 유럽이나 남미에 견주어 약과라고 하지만 아직일 뿐이라고 한다. 이미 그 예고편이 펼쳐지고 있는 만큼 역대

최악의 폭염을 피할 수 없을 모양이다. 그것이 임계점을 향해 치닫고 있는 기후변화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이제 모두가 알고 있다.

그 사실을 나는 절감한다. 지난해 이맘때 저수지둑이 무너져 논배미에 물을 대지 못하는 바람에 수북이 올라온 김을 매느라 열흘 가까이 애를 먹어야 했다. 물론 무척 힘에 겨웠지만 무더워서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 그런데 올해 비슷한 상황이 펼쳐졌다면 그런 끔찍한 상황도 없었을 것이다. 김매기는 엄두도 못내고 그저 발만 동동 구르고 있었을 게 틀림없다. 이 찜통더위에 김매기란 도무지 될 법한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하여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은 것은 정말 천만다행이라 감지덕지하고 있는 중이다.

그렇지만 나오서는 이 기후위기를 놓고 이래저래 걱정을 쏟아내는 일 말고 스스로 할 수 있는 게 무엇인지 알 수가 없다. 밀려드는 해일을 그저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는 극심한 무력감에 시달릴 뿐이다. 해마다 여름이 되면 뻘한 얘기를 되풀이 들먹이는 자신이 딱해지기도 한다. 그래도 어찌겠는가. 더위를 식히는 오늘 소풍은 시원한 팔빙수와 아이스아메리카노로 마무리되었다. 다시 고산으로 돌아온 오후 6시. 차 문을 열고 나오니 한층 막 같은 열기가 후끈 다가온다. 비봉 염암마을

완주군의회 소식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의 출발점”

이순덕 운영위원장, 여성기업인과 간담회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이 11일 군의회 문화강좌실에서 완주군 여성기업인들과 함께 '완주군 소재 여성기업의 경제활성화 지원 및 불편사항 청취를 통한 협력방안 논의'를 주제로 간담회를 진행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제조, 건설, 식품,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중인 여성기업 대표 2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업 운영 과정에서 겪는 현실적인 어려움과 제도 개선 요구를 자유롭게 공유하고 지속가능한 지역경제 기반 마련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상온순환아스콘 기층재 등 녹색제품 활용 확대 ▲전북

특별자치도 및 세종시 사례를 참고한 완주군 투자유치 조례 개정 ▲BESS(에너지저장장치) 등 신재생에너지 기업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한 개발행위 조례 내 주민 동의 기준 완화 ▲식품 제조업체의 공공·기업체 납품 확대 및 행정 지원 ▲용역 입찰 시 일반관리비와 기업이윤의 현실 반영 ▲로컬푸드 입점 기준 완화 등 다양한 건의사항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이순덕 위원장은 “완주군 여성기업은 지역경제를 이끄는 당당한 주체이자 일자리 창출의 중요한 기반”이라며 “오늘 제시된 건의사항은 관련 부서와 긴밀히 협의해 정책화하고, 제도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군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강조했다.



완주마을이야기 완두콩
완주 CB공동체

- 발 행 미디어공동체완두콩협동조합
- 발 행 인 이용 규
- 주 소 전북특별자치도 완주군 삼례읍 삼례나들목로 338-33
- 대 표 전 화 063-291-8448 • 팩 스 063-261-8448
- 홈 페 이 지 www.wandookong.kr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완주.라00002 구독료 월 5,000원 후원 월 1만 원
 독자기고 및 제보 toktok1942@hanmail.net

심심한 완주 모이자! 모여!



푸르른 녹음이 더욱 짙어지는 무더운 여름 7월. 완주군 곳곳에 다양한 소식과 진행되는 프로그램 일정을 함께 해 보자. 상기 일정은 필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참여 신청은 각 프로그램 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심심한 완주 사람들 고민하지 말고 여기로 모이자!

'사이:예술학교'는 장애 예술의 접근성을 넓히고 누구나 예술을 통해 자기표현과 소통을 경험하며 삶의 기쁨과 행복을 느낄 수 있도록 돕는 특별한 예술교육 프로그램이다. 예술에는 장애가 없으며 이 프로그램을 통해 열릴 수 있는 무궁무진한 세상을 만나고 싶은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모집기간: ~8월 1일 (금)까지
모집인원: 10명 내외
신청: 완주문화재단 홈페이지 공고글 참여링크
문의: 문화예술진흥팀 063-262-3955



접수기간: 7월 21일(월)~7월 25일(목)까지
신청: QR코드 공고글 접수
문의: 문화예술진흥팀 063-262-3955

고산 청년거점공간 '청춘 방앗간'

수요 영화데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영화를 감상하고 소통하는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싶은 사람은 방앗간으로 모여라! '빅쇼트', '인턴', '걸어도 걸어도'를 함께 본다. 영화를 즐기고 싶은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7월 16일, 23일, 30일 (매주 수) 오후 2시

여름 저속노화밥상

신선한 제철 식재료로 정성껏 준비한 밥상은 몸과 마음에 활력을 넣어준다. 느리게 즐기는 저속 노화밥상은 조금 더 천천히, 건강하게 살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맛있는 음식을 먹는다.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진행정보: 7월 17일, 24일, 31일 (매주 목) 오후 6시
참가비: 5,000원

한 달 한 권 독서모임

한 달에 한 권 책을 읽고 싶은 사람들이 모여 함께 책을 읽는 시간이다. 혼자서는 완독하기 어려운 독서를 방앗간 책모임을 통해 함께하자!

진행정보: 7월 격주 금요일 오후 2시
접수방법: 인스타그램 신청링크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100 갑밥천국 2층
문의: 063-262-2800
운영시간: 매주 화~토 오후 1시~9시 (일,월,공휴일 휴무)
인스타그램: @cheongchon

창작과 공유, 소통의 공간 '완주미디어센터'

+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된 7월, 시골극장 콩씨네와 함께"

시골극장 콩씨네 7월 상영 시간표를 공개한다. 온 가족이 즐거운 <토요 극장>과 영화를 깊이 있게 해 줄 <저녁극장>이 상영될 예정이다.

* 온 가족이 즐거운 <토요 극장>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7월 19일 (토) 오후 2시	스쿨 오브 락	코미디	12세 관람가
7월 29일 (토) 오후 2시	우리들	드라마	12세 관람가



* 영화를 깊이있게 <저녁극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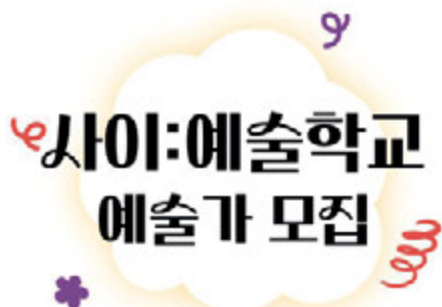
상영일	제목	장르	관람가
7월 29 (화) 오후 7시	판타스틱 우먼	드라마	15세 관람가



문의: 063-262-1895
주소: 완주군 고산면 고산로 70-10
운영시간: 오전 10시~오후 6시 (점심시간 오후 12시~1시)

2025 장애예술교육 '사이:예술학교'에서 예술가를 모집

장애와 예술, 지역과 사람을 잇는 따뜻한 예술의 배움터 2025 장애예술교육 지원사업



2025 완주 예술인 작품 공개 구입

완주군이 지역 예술인들의 창작 활동을 응원하고 일상 속에서 예술을 쉽게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지역 예술인의 작품을 구입하고 이를 전시하여 완주와 예술이 가까워지는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이번 사업은 예술가들의 작업 세계를 존중하고 예술적 생기를 더하는 중요한 의미가 더해진다. 작품은 심의를 통해 공정하게 선정되며 예술인들의 창작 지속성을 지원한다. 자세한 내용은 완주문화재단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면 된다.

휴시네마 청소년 서포터즈 '휴머치 토크' 모집

휴시네마는 영화를 사랑하고 애정을 가진 청소년 관객과 함께하고자 청소년 서포터즈 '휴머치 토크'를 모집한다. 휴시네마와 관객을 이어줄 열정 있는 완주 청소년들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모집대상

- * 영화를 좋아하는 완주 거주 청소년(12세 이상 ~ 19세 미만)
- * 영화를 사랑하고 감상 후 누군가와 나누는 걸 좋아하는 분
- * 휴시네마를 자주 이용하거나 관심을 갖고 지켜봐 오신 분
- * 영화관의 운영이나 프로그램에 의견을 나누고 싶은 분
- * 지역 문화에 관심이 있고 사람들과 소통하고 싶은 분

서포터즈 활동 내용

- 상영작 선정: 휴시네마에서 상영할 영화를 추천과 투표를 통해 함께 선정.
- 영화 감상 후 이야기 나누기: 관람 후 소규모 모임에서 감상 토크 또는 소셜미디어 후기 나눔.
- 행사 기획 및 지원: 휴시네마에서 열리는 작은 행사나 이벤트에 참여하거나 서포트.
- 정기 모임 참여: 월 1회 오프라인 모임을 갖고 활동 내용을 공유하고 소통.

활동 기간

2025년 8월 ~ 10월 (3개월)

활동 혜택

- 영화 무료 관람권 제공 (월 2회)
- 활동 기간 이수 시 봉사활동 인정 및 수료증 발급

지원방법

QR코드 접속 후 네이버 폼 작성하여 지원
문의: 휴시네마 063-262-9012



2025 재능공유클럽 모두들 클래스

모두들클래스는 재능을 공유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발적으로 진행하는 다양한 원데이 클래스다. 취미나 관심사에 대한 나만의 경험과 지식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며 함께 배우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 또는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홈페이지 공고글을 확인하면 된다.

사업기간: 2025년 ~ 11월 (사업비 소진 시까지)

사업내용: 재능공유 원데이 클래스 지원

대상: 완주군민

지원내용: 재료비 지원(1인 최대 3만원, 1클래스 최대 20만원)

2025 지역공연예술 활성화 지원 사업 선정 공연 연극 '야, 춘기야!'

사춘기 소녀와 엄마의 갈등을 유쾌하게 그린 연극 '야, 춘기야!' 이 공연은 완주향토문화회관에서 7월 18일 금요일 오후 7시 30분에 진행된다. 춘기와 엄마의 갈등을 통해 세대 간의 이해와 성장을 그린 이 연극은 유머와 감동을 넘나드는 이야기로 관객들에게 큰 울림을 선사할 예정이다.

공연장소: 삼례읍 삼봉로 215 완주향토문화회관
 무료관람, 문의 063-291-7245

삼례문화예술촌 박진영 지역 작가 '초인' 전시



전북특별자치도 명품관광지인 삼례문화예술촌에서 지역작가 공모 전 4번째로 박진영 작가의 '초인(超人)' 전시를 진행한다. 박진영 작가는 '초인'이라는 아이콘을 통해 사회의 구성원으로 삶을 영위하고 있는 우리 개개인들의 존재 이유에 대해서 고민하고 그 결과물을 조형적으로 풀어낸다. 이번 전시에 소개되는 작품들은 인간이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품는 내면의 질문과 정체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며 '사회라는 틀 속에서 일상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초인이다'라는 메시지를 전한다. 이번 전시는 9월 4일까지 삼례문화예술촌 제3전시관에서 만나볼 수 있다.

장소: 삼례읍 삼례역로 81-13 삼례문화예술촌
 문의: 063-290-3869

2025년 전북 생태관광 숲속 결혼식 참가자 모집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에서 전북 생태관광지와 천리길의 우수한 생태·환경·경관자원의 배경으로 평생을 함께하는 반려자와의 소중한 결혼식 서비스를 제공한다. 관심 있는 사람은 전북생태관광육성지원센터 또는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모집대상: 전북도민 중 예비 신혼부부 또는 노년부부 1쌍
 예식일정: 2025년 9월 ~ 10월 주중
 (※예식대상자 선정 후 일정 조율)
 예식장소: 정읍 솔티 생태관광지 및 내장산 국립공원 일대
 신청기간: ~8월 1일 (금) 까지
 신청방법: 이메일 신청(jeonbukecotour2@naver.com)
 ※ 신청 후 선정위원 평가와 신청자 개별 면담 과정을 거쳐 선정 여부 확정
 문의: 063-224-1966, 070-4191-6201

이종민 교수 영시특강

삼례책마을에서 이종민 교수의 영시 특강이 열린다. 학문과 감성의 경계를 넘나드는 명징한 해설, 불멸의 영시와 함께하는 꽃보다 찬란한 언어의 숲 산책이 펼쳐진다.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일시: 7월 7일(월)~8월 11일(월) 오후 7시
 장소: 삼례책마을
 주최: 완주문화도시지원센터
 공동주관: 완주인문학당, 삼례책마을
 후원: 완주군

세부일정

7월 7일: 형이상학적 사랑-던 John Donne
 7월 14일: 욕망의 역설과 아이러니-셸리 P. B. Shelley
 8월 4일: 멈출 수 없는 여행-테니슨 Alfred Lord, Tennyson
 8월 11일: 사랑으로 부족하다는-아일랜드 Matthew Arnold
 접수: '영시의숲' 오픈채팅방 입장
 연락처: 010-4133-3211

2025 완주향의예술미래공간 꿈이공 여름방학캠프

완주교육지원청이 2025 꿈이공 여름방학 캠프 '여름! 나를 찾아가는 여행, Summer Dream Art Lab' 참가자를 모집한다. 이번 캠프는 8월 4~14일 운영된다.

캠프에는 완주 초·중등 학생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예술과 체험, 진로 탐색을 결합한 다채로운 프로그램을 통해 학생들이 꿈과 재능을 발견할 수 있도록 기획됐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자기 돌봄(명상 및 움직임), 생각을 그리는 작가교실(초등 인문학), 스토리 크리에이터(중등 인문학), 메타버스를 이용한 탄소저감기술 제작, 푸드 테라피, 케이팝 댄스 아카데미 뷰티 클래스(네일아트), 에너지 UP! 같이 뛰어놀자(뉴스포츠), 캘리그래피와 시, 디지털 드로잉을 활용한 쇼츠제작(웹툰), 꿈을 부르잉하다(바리스타 체험), 나무에 담은 나의 이야기(목공·공예), 합주 능력 완성 프로젝트(밴드), 나의 첫 무대, 나의 이야기(연극) 등 14개 과정이 운영된다. 관심 있는 사람은 아래 정보를 통해 참여하면 된다.

신청기간: 7월 18일 (금) 까지
 신청방법: <https://naver.me/GnReaCOK> 접수
 문의: 063-291-9033



“반려견,
 사지 말고 입양해요”

입양을 기다리는 유기견 라봉이(♀)
 노란 귀가 매력적인
 라봉이!

* 직장인 봉사자들이 홍보와 상담 진행 중으로 입양 상담 외 구조 등 기타 문의는 받지 않고 있다.
 · 입양을 기다리는 더 많은 아이들이 보고 싶다면?
 인스타그램 @wanju_star (별빛유기동물지킴이)

체중: 13kg
 나이: 4살 추정
 건강상태: 입양 후 중성화 필요, 매달 심장사상충 예방약 복용중
 라봉이는 아직 사람의 손길이 낯설어서 사회화 연습이 필요하다. 보호소에서 강아지들과도 잘 지내며 최근 처음 산책을 나가리드줄에 적응 중이다. 이런 라봉이에게 좁은 울타리를 벗어나 편안하게 지낼 수 있으며 사랑을 베풀어 줄 가족이 절실히 필요하다.

입양 신청 방법: 인스타그램 프로필 링크 접속하여 신청



★ 입양은 새로운 가족을 맞이하는 일이므로 신중히 고민 후 연락 부탁드립니다. ★

전국최초 아동친화도시
상위인증 갱신도시 완주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완주

아동권리영화제

작품공모

2025.6.19.(목)~9.8.(월)



참가자격

① 대한민국 아동·청소년(개인/ 팀) ② 가족팀(아동, 성인 구성)

공모주제

- ① **다름을 존중하는 세상** (예: 장애아동, 어주어동 등 소외계층 아동의 권리 조명)
- ② **나의 목소리, 우리가 만드는 세상** (예: 아동·청소년의 목소리를 반영한 사회변화 이야기)
- ③ **아동·청소년이 행복한 세상** (예: 디지털 환경, 마음건강, 놀이환경 등)

작품길이

10분 이내(장르 : 스톱, 애니메이션, 뮤직비디오, 극영화)

영화제 일정-2025.10.25.(토) 오전 10시

완주군청 문예회관 (필수참석)

분야	대상	최우수상	우수상	장려상
아동·청소년팀	1팀(부상 200만원)	1팀(부상 100만원)	4팀(부상 50만원)	10팀(부상 10만원)
가족팀(아동, 성인)		1팀(부상 100만원)	4팀(부상 50만원)	10팀(부상 10만원)

www.wanju.go.kr/wanjucfc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 아동청소년 홈페이지 참조)

문의: 010-6622-2186
사)한국영화인총연합회 전북도지회



신청은 QR코드로 접수